

“재난·테러로부터 당신을 지킵니다”

포천소방서, 고층건축물 화재예방 소방훈련

포천소방서(서장 최덕기)는 지난 4일 오후 2시 내촌면 소재 베어스타운 타워콘도에서 소방공무원 19명과 직장자위소방대 및 유관기관 관계자 24명이 참석, 실제 화재상황의 유연한 대처를 위해 고층건축물 화재진압 및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각종 재난 및 테러로부터 소중한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했으며, 대형재난사고의 훈련에 앞장서도록 지휘차량, 펌프차량 2대, 구급차량 1대, 물탱크차량 1대, 굴절차, 구조차를 배치시켰다.

또한 이날 훈련을 통해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보완 및 검토하기 위해 재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 화재 및 테러 등 각종



포천소방서가 지난 4일 오후 2시 내촌면 소재 베어스타운 타워콘도에서 고층건축물 화재진압 및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을 통한 소방훈련을 매달 실시할 예정이다. 지희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의무소방원 및 전·의경대원 친선축구

포천소방서(서장 최덕기)와 경찰서(서장 김영목)가 지난달 29일 의무소방대 및 전·의경대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천시 공설운동장에서 우호 증진을 위한 친선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친선행사는 축구경기와 함께 오찬을 함께하며 대화의 장으로 이어졌으며 소방서 및 경찰서 관계자와 포천여성용대, 전·의경 어머니회 등 총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유관기관 상호 협조하며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편 최덕기 소방서장과 김영목 경찰서장은 각종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일하고 있는 의



포천소방서와 경찰서가 지난달 29일 의무소방대 및 전·의경대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천시 공설운동장에서 우호 증진을 위한 친선행사를 개최했다.

무소방원 및 전·의경대원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지희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 펼쳐

군내면 직두리 등 4필지 50ha 면적 실시

포천시가 올 하반기에 군내면 직두리 산20-4번지 등 총 4필지 50ha 면적에 ‘숲다운 숲 정비사업’을 펼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시는 숲가꾸기 근로자 21명을 투입해 숲아베기, 어린 나무가꾸기, 가지치기 등을 시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나무를 심어만 놓고 잘 가꾸지 않으면 길으로는 울창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병들고 사들어 경제 및 환경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숲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숲가꾸기를 한 산림은 풍해, 설해,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이 증대되고 형질이 우수한 임목을 생산

할 수 있으며, 특히 불량수종 제거를 통해 숲의 밀도가 조절됨으로써 시민들에게 새로운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천시는 최근 청사 소회의실에서는 숲가꾸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숲 정비를 위한 기술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박윤국 포천시장은, 비가 오면 물을 담고 있다가 비가 오지 않는 갈수기에 천천히 흘러보내는 녹색댐의 기능 등 숲이 지닌 다양한 가치에 대해 설명한 뒤,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과 포천시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자부심을 갖고 숲가꾸기에 정성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은 숲가꾸기의 목적과 작업요령, 근로자 근무 및 안전수칙, 숲다운 숲 정비사업 추진목표 등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지희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 무의촌지역 출장검진

오는 29일까지 선단동 및 11개 면지역서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지사장 원성균)는 지역주민들의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 질병의 사전예방으로 국민건강수준의 향상 및 농촌지역 등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검진에 대한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무의촌지역 출장 검진을 실시한다.

이번 출장검진 대상지역은 선단동 및 11개 면지역 등 검진기관이 없는 무의촌 지역으로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포천농협선단지소 및 11개 면사무소회의실에서 실시된다. 검진대상은 세대주 또는 만 40세 이상(1965. 12. 31 이전 출생자) 홀수년도 출생자 및 직장피부양자,

짝수년도 출생자중 2004년도 미수검자로 1차 검진으로 요검사,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등 22항목과 2차검진으로 폐결핵, 당노질환 등 8개 질환 28항목을 검사 받게 된다.

이번 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부담하며 2005년도에 이미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지희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마음놓고 학교가기 추진협의회 발대식

위원 21명 위촉

포천경찰서는 지난 5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김영목 경찰서장, 각 과장, 장학사, 교사, 변호사, 의사, 시청 공무원,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청소년 NGO, 학부모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음놓고 학교가기 추진협의회 발대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새로이 구성된 마음놓고 학교가기 추진협의회 위원 21명 각각에게 경찰서장이 위촉장을 수여했고, 생활안전과장(경정 김두현)이 마음놓고 학교가기 치안정책에 대한 설명을 실시했다.

또한 경찰에서 현재 운영 중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기간 운영” 관련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학교폭력 단속 방안과 근절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지희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경찰서 인사발령

- ▶순경 형철용 수사과 유치관리팀 ▶경사김영기 영북지구대 1팀부소장 ▶경장 김재훈 일동파출소 순찰요원 ▶순경 박영관 일동파출소 순찰요원 ▶순경(여경) 허경희 포천지구대 순찰요원 ▶순경(여경)문정신 소흘지구대 순찰요원 ▶순경 임원빈 포천지구대 순찰경찰 이상 7월 8일자.

목회단상

행함의 삶(實踐)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실천의 삶이다.

일찍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건국 초기의 지도자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는 대통령만 못 되었을 뿐 자기가 원하는 모든 중요한 직위를 다 가져보았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학교를 다닌 시간은 고작해야 2년 남짓이었다. 그가 22세때 스스로 반문하기를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 무엇일까?”하면서 스스로 12가지 덕목을 뽑아 죄무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첫째 -절제 : 과음과 과식은 하지 않는다. 둘째-정직 :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다. 셋째-질서 :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일은 알맞는 시간에 한다. 넷째-절단 : 해야 하는 일은 미루지 않고 반드시 완수한다. 다섯째-절약 : 비싼 것은 사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좋은 것이면 산다. 여섯째-근면 : 시간은 헛되지 쓰지 않는다. 일곱째-성실 : 남을 해치는 책략을 사용하지 않는다. 여덟째-정의 : 남의 권리를 침해 하거나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 아홉째-중용 : 극단은 피한다. 열 번째-청결 : 몸, 의복, 집이 불결한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열 한번째-화평 :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는다. 열 두번째-순결 : 성을 남용하지 않고 건강과 생산을 위해



김창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서 사용한다.

프랭클린은 이상의 12가지를 적어서 목사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다 좋은데 한가지가 빠졌군요 바로 ‘겸손’이 없으면 12가지를 다 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프랭클린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첫 번째 항목에 겸손을 넣고 ‘예수그리스도와 소크라테스를 본받는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활 단위를 13주 단위로 구분하여 매주 한 항목씩 묵상하고 실천하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그는 78세 때 회고록을 쓰면서 말했습니다. “완벽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노력하였던 덕택에 좀 더 선량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파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라디아 6장9절)

문의) 031-532-2489

탐방 우리지역 지킴이-자율방범대 ① 자율방범대 연합대장 이창열

우리사회는 다양한 직업과 계층이 존재하면서 보이지 않게 서로의 관계유지는 물론 상부상조의 정신을 지켜 나가고 있다. 그 중에 인기가 있는 일도 아니고 남들이 알아주는 일은 아니지만 지역의 치안유지는 물론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지역 자율방범대다. 자율방범대의 임무와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사회의 고마운 이웃들의 면면을 알아서 서로 이해와 상생의 폭을 넓혀 나가고자 하는 기대로 자율방범대 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주)

포천경찰서 자율방범대는 최초 1985년에 출범, 1988년부터 활성화돼 연합방범대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지킴이다. 지난 2002년 6월 1일자로 임명돼 3대와 4대 연합대장을 맡아 자율방범대의 연합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창열(46·사진) 대장으로부터 자율방범대의

내, 가산, 소홀, 내촌이고 연합대는 김연경 부대장. 이희석 사무국장, 송호천 총무 등으로 구성돼 있다. 포천경찰서 자율방범대는 직제상 경찰청에 소속돼 있으며, 각 지역별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시에서 연간 120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생력 확보 통한 방법 활동 강화

임무와 역할에 대해 들었다. 포천경찰서 자율방범대는 15개 대 50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지역 지구대에 소속돼 경찰의 부족한 인력 등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다. 관내 조직된 자율방범대는 일동, 이동, 화현, 영북, 산정, 관인, 영중, 창수, 신북, 포천, 선단, 군

내, 가산, 소홀, 내촌이고 연합대는 김연경 부대장. 이희석 사무국장, 송호천 총무 등으로 구성돼 있다. 포천경찰서 자율방범대는 직제상 경찰청에 소속돼 있으며, 각 지역별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시에서 연간 120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까지 실시하고 있다”며 “이런 각종 활동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 대장은 ▶신분상의 제약으로 인한 위험상황 발생시 보상을 받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상해보험을 현재 120여명에서 대원전체로 확대 ▶제복의 통일로 관내 자율방



이창열 자율방범대 연합대장

청소년 선도, 교통사고 및 각종 사고 발생시 인명구조, 산악 구조 활동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장은 “지역 주민들과 항상 함께 호흡하는 자율방범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희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귀하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을...

차별화된 식품을 선도하는 기업 “영동식품”



代表 文宰吉

“20년간 오로지 믿을 수 있는 좋은 제품만을 제조·판매하여 소비자에게 보답하겠다는 신념은 변함없습니다”



☆영동 1호 세트 100g×36人分 3.6kg



☆영동 2호 세트 100g×24人分 2.4kg

생산품목

- 영동국수·소면 ■영동메밀·칼국수 ■곰포국수·소면
- 곰포칼국수 ■정훈우동·스파게티 ■차별화된 술·젓·쫄국수

■ 본사 :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359-2 ■ 전화 : 031-535-5773 ■ 팩스 : 031-534-13